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0월 25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6장 24-34절

설교제목 :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숭배의 유혹에 대한 경고입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출20:4) 우리는 우상숭배의 본질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들이 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의 머리를 잘라 버린다면, 불상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사찰에 낙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 2계명의 실천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파괴하라는 것은 우선 섞이지 말라는 것이 그 명령의 핵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어도, 섞이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회개운동입니다. 즉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회개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상화된 우상들보다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섞이지 않고, 우상을 철저히 회개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듭니까?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실존적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타락한 인간 존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존재한다 고로 염려한다’입니다. 염려는 창조주의 품을 떠난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결국 염려란 단순한 걱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본질은 나를 위해서입니다.(출20:4)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무엇입니다. 우상에 의지해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염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본질적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계명의 핵심적 원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상태, 즉 영생의 회복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써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곧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바뀌어 말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은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지 택해야 한다고 합니다.(24절) 결국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문제는 곧 로드십의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라는 주재권의 고백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우리에게 전혀 염려할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면 아무 고난없이 살 수 있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요16: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다가 고난이 생겨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요점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들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주권과 권능의 의미입니다. 즉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26-30절) 코로나 시대가 주는 염려가 생존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란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생존의 두려움이 삶을 지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34절) 그런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의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찮은 창조물까지도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생존의 문제는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33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빌4:6-7) 결국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곧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 없이 사는 자가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계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말세가 되면, 미지근한 신앙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아니면 죽든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삽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살고, 안하면 죽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회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지 설명해 봅시다.
- 2) 우상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요즘 여러분의 염려거리는 무엇인가요?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나누는 대화를 기초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